

4) 기 타

(1) 수복(首服)

여성용 수복은 남바위, 휘양(회양), 귀도리, 고깔모자, 켈도 등이 있다. 남바위는 부유층에서 외출시 겨울에 방한용으로 썼으며, 휘양은 솜을 넣거나 실로 짠 수건인데 외출시 머리에 쓰고 나갔다. 남성도 같이 쓴 귀도리는 귀를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부유층에서 겨울 방한용으로 사용했다.

남성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는 망건, 갓, 동곳이 있다. 이마를 두르는 모발 정리용인 망건은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틀어 올렸다. 갓은 계층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 즉 차양이 넓은 것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었고 좁은 차양은 민가에서 사용하였다.

상투 위에 박는 동곳은 소재에 따라 금동곳, 은동곳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박아야 상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동곳은 잡귀가 범하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신구이기도 하였다. 상투 위에 동곳을 박았던 한 어른이 우물에서 물을 길으면서 “우물 안에 든 물귀신이 이 동곳을 보면 겁이 나서 나를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여 “나는 동곳을 빼고 물을 길러보겠다.”고 하며 물을 길는 순간 우물물에 빠져 죽었다는 일화가 있다.(제보자 : 황하석, 75세, 서면 구룡리)

(2) 족의(足衣)

버선은 발의 크기에 따라 치수만 다를 뿐 남녀가 같은 모양을 착용하였다. 소재로는 무명·명주를 이용하여 만들었고, 색은 흰색이나 누런색 또는 물감을 들여 파란색을 신기도 하였다. 버선은 빨아서 삶고 또 풀까지 해야 했으므로 매일 빨지는 못하고 3~4일에 한 번씩 갈아 신었다. 버선 위에 발바닥부터 정강이까지 베를 감아 올리던 감발은 모를 심을 때나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옷에 풀이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걸어다닐 때 착용한 신발은 부유층에서 서민층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쫓는 짚으로 만든 짚신은 비만 맞지 않으면 사계절 내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삼아서 신었다. 남의 집에서 며슴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짚신을 신는 정도에 따라 품삯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만드는 방법은 짚을 물에 축여서 부드럽고 질겨질 때까지 두드려서 만든다. 짚신은 주로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가, 시집와서는 시아버지가 삼아주었다고 하며, 잘 떨어지는 거라 좋게 신지 않으면 혼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제보자 : 박봉래)

밧신, 미신(미투리), 매터리는 질긴 정도가 짚신의 10배 정도인 만큼 가격도 10배 정도 되었다고 한다. 삼이나 모시로 신총을 비벼서 날을 6개로 나누어 엮어 만들었는데 육날이라고도 하였다. 원료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에게는 부가가치가 높았으며 대부분 부유층에서 애용했다. 소나무나 오동나무를 코고무신 모양으로 파서 굵을 높게 만들어 비오는 날 신었던 나막신(나막개)은 코부분을 끈으로 엮어 신었다.

이외에도 부잣집에서 신는 가죽신(까찌니), 주로 시집갈 때 여러 가지 색의 천을 짜집기하여 만들어 신은 까쩨, 빨강계 염색하여 어린이나 여성용으로 이용된 꽃신 등이 있다.

(3) 장신구

보통 서민들은 장식을 하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다. 여성들은 분, 귀후부재(머리에 꽂는 장식), 가락지 등을 하였고 비녀(은비녀·금비녀·꼬챙이 비녀), 바늘(비상용으로 머리에 꽂음) 등을 머리에 꽂고 다녔다. 그리고 귀주머니나 도리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다녔다.

남성들은 백통(옛 가구 재질)으로 만든 담뱃대를 사용했는데 길이에 따라 신분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긴 것은 양반이, 짧은 것은 서민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담배쌈지(게오랑), 칼 등을 허리춤에 달고 다녔다. 또 호박풍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호박은 옥과 비슷한 보물로 송진이 땅 속에서 100년쯤 있어야 만들어진) 주로 부자들이 사용했으며, 밤길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